"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유지 필요"

김광수 의원, 19일 정진엽 복지부장관 만나 필요성 제기… "지역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한 문제 야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유지 필요성을 복지부에 전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19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전북대병원 소아사망 사건과 관련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유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아 사망사건 관련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정취소를 하게 되면 지역의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4일 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식 제기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센터를 지정취소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북대병원 소아 사망 관련, 해당 사건의 책임이 있는 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등 조치 수위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당연직 5명, 위촉직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민형 기자

민주당 "'문재인 북한과 내통' 발언한 이정현에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문 전 대표를 종복(從僕)이라고 비난한 박명재 사무총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열고 "새누리당이 권력형 비리 문제를 막으려 벌이는 치졸한 정치공세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국기문란·반역·내통과 같은 적반하장의 막말과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이 대표와 박 사무총장을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당 "돈도 실력? 최순실 딸 막말에 개탄"

국민의당은 19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거 자신의 SNS에서 "돈도 실력"이라며 막말을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새누리당이 마치 최순실, 정유라의 보디가드와 대변인인 것처럼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고 있으니 정 씨의 사고방식과 막말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강연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최 씨는) 사적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농락하고 대기업들을 좌지우지 하고 자신의 딸에게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삐뚤어진 자만심을 심어 평범한 대다수의 청년들을 마음껏 비웃을 수 있게 했다"며 "정치권이 가장 앞장 서 철저히 파헤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정유라 씨가 지난 2014년 12월 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더민주-민주당 통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통합 안건을 정식 의결, 법적으로 양당 간의 통합이 마무리됐다.

우상호 "최순실 딸, 호텔 통째 빌려 거주… 미친 짓"

"최씨 모녀, 공적 자금을 사유재산처럼 사용…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 "지금 최순실 씨의 딸이 독일호텔을 통째로 빌려 거주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미친 짓"이라며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스포츠재단이 모금한 80억원이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유입됐고, 정 씨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호텔의 방 20개를 모두 빌려 거주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결국 공익적 목적으로 재벌 대기업이 낸 돈이 최 씨의 딸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것이었고, 결국 공적 자금이 최 씨 모녀의 사유재산처럼 쓰여진 것"이라며 "형사부나 특수부나 뭐라하지 않겠다. 다 똑같은 검찰 아닌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안은 독일까지 뻗어져 있어 증거인멸하기 좋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사의 감사도 그렇게 안한다. 이 나라의 검사가 배당사건에 손을 놓아선 되겠느냐"라며 "공익재단의 돈이 어떻게 사유재산으로 활용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른바 '최순실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도 "최 씨는 나라를 위해 한 일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했다.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순실 씨가 자신의 딸을 위해 한 일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짐이 곧 나라다, 라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내 딸을 위한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범죄 사실로 확정돼 가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17일 한겨레는 정유라 씨가 지난 5월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호텔의 방 20개를 모두 빌려 다른 손님 없이 지원인력들과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문재인 "색깔론 고질병 새누리 이번에 버릇 고쳐놓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선거만 다가오면 색깔론을 고질병처럼 다시 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못된 버릇을 이번에 꼭 고쳐놓겠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망국적인 종북타령을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색깔론을 통한 분열의 정치, 적대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바로잡는 것을 나의 정치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당시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는지 아니면 사후에 통보했는지에 관해선 "사실관계는 이미 충분히 다 밝혀졌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이런 남북관계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우리의 수준 낮은 정치"라며 연일 문 전 대표의 대답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에 화살을 돌렸다. /뉴시스

야3당 "이철성 경찰청장 사퇴하라"

"백남기 사건 경찰 상황보고서 은폐 국회 위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9일 농민 백남기 씨 사건 정황이 기록된 경찰 상황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된 것과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경찰은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다가 이후 폐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이후 김정우 의원이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특히 이 청장은 '법원에 제출된 상황 속보 외에 현재 확인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문건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진상규명은 방기한 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이 청장은 국회 위증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이 청장을 비난했다.

이들은 또 "경찰의 과잉 공권력에 희생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야3당이 요구한 특검 도입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거짓된 답변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이철성 경찰청을 비롯해 강신명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신윤균 단장 등 경찰의 전현직 지휘부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며 경찰의 무리한 부검영장집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황보고서가 없다고 잡아 뗀 경찰청장은 국정감사 위증죄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또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시도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뉴시스